

새 책

진실 지키기 위한 투쟁, 첨예한 기록

▶소소하지만 매일 합니다(허유정 지음)=17만 팔로워가 사랑하는 제로 웨이스트 살림꾼 '프라우허'가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실천하는 무해한 살림법 대공개.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바뀌보는 살림 습관들. 인플루언서 프라우허의 유쾌하고 무해한 살림 이야기. 세미콜론. 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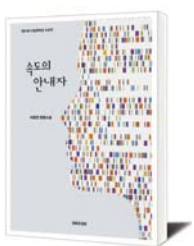


▶낙타의 눈(서정 지음)=흔히 '낙타'라고 하면 중동의 어느 사막 속 낙타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동유럽의 낙타를 이야기한다. 러시아의 서쪽 끝과 남미, 그리고 노르웨이, 민스크와 페테르부르크, 카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저자의 아름다운 사유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소명출판. 1만9000원.



사유의 흔적들을

▶속도의 안내자(이정연 지음)=주말에 경마장 도핑검사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주인공 채운이 많은 보수를 받는 대신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소설은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21세기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광화문글방. 1만3000원.



▶인생에 늦은 때란 없으니까, Not too Late Diary(황보출 지음)=70세에 한글을 처음 배우고 80세에 시인이 된 90세 황보출 할머니가 20년간 스케치북에 매일 쓰고 그린 시 28편과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 마음을 한 권에 담았다. 시집이자 다이어리북이다. 휴머니스트. 1만8500원.



▶아리랏섬 친구들과 백만 유튜브 날쌔고래(가순열 지음, 신기영 그림)=가상의 공간인 아리랏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장편동화. 흡스쿨링을 하는 주인공 로은이는 오지에 우물 파기 지원을 하는 아빠를 따라 아리랏섬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만난 건강하고 밝은 친구들과, 꿈에 그리던 고래상어. 로은이는 신나게 동영상을 찍어 올리고, 백만 유튜브가 되는 행운을 얻는다. 한그루. 1만3000원.



▶10대와 통하는 미디어(손석춘 지음, 김용민 그림)=신문,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미디어의 역사, 미디어의 개념, 미디어의 활용법에 대해 쉽게 알려준다.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미디어인 말로부터 시작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적 미디어까지 미디어에 대한 인문학적 내용을 청소년 눈높이에서 담고 있다. 철수와영희. 1만5000원.



조상윤기자

마리아 레사의 '권력은 현실을 어떻게 조작하는가'

혁신 일귀은 저널리스트의 언론·민주주의 위기 경고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가 수상 후 1년 만에 회고록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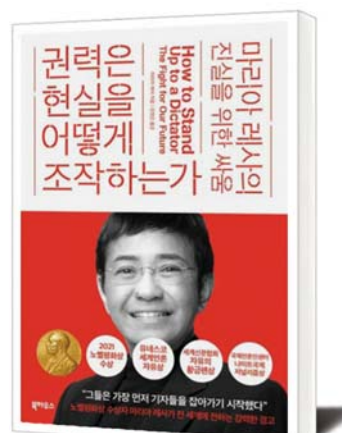
디지털 기반의 뉴스 사이트 래플러의 CEO이자 필리핀 저널리즘의 혁신을 일궈온 그녀는 그간 소셜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문제적인지, 그 기술을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입증해왔다. 필리핀 정부가 소셜미디어에서 벌이고 있는 정보 작전의 전모를 밝힌 기사를 낸 이후 래플러와 마리아 레사는 대통령궁 출입을 금지당했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십여 건의 소송에 직면했다. 그녀에게 구형된 누적 형량만 100년이 넘는다고 한다.

그녀는 책 '권력은 현실을 어떻게 조작하는가' (북하우스 퍼

냄, 김영선 옮김)에서 "법치주의가 부재하는 가상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지 보여주려 한다"고 했다.

책은 소셜미디어가 정치 선전 도구로 활용되면서 어떻게 법과 민주주의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시대 언론이 직면한 위기의 실체, 그 역할과 책임, 그리고 복원해야 할 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필리핀의 현실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출판사는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기술 기업이 언론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대, 민주주의가 '천 개의 상처'로 찢겨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임상적으로 해부한 보고서"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책에 담긴 분노와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마리아 레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귀



담아들어야 할 이유"라고 덧붙인다.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는 이 책. 그녀는 "민주주의는 취약하다. 우리는 모든 법, 모든 보호 장치, 모든 제도와 이야기 등 모든 부분을 위해 싸워야 한다. 아주 작은 상처라도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프롤로그 중)고 말한다. 1만8500원.

오은지기자 ejuh@ihalla.com

날카로운 필치로 시대를 훑다
고흥철 시사평론집 '돌소리 바람소리'

제주에서 40여 년을 언론인으로 살아온 고흥철 씨가 최근 첫 시사평론집 '돌소리 바람소리'를 펴냈다. 대부분 신문에 게재했던 칼럼을 추려 모아 총 6부 17장에 담았다.



저자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치, 교육, 환경, 외교, 통일, 인권, 민중, 혁명, 지방자치, 산업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제1부는 냉전 시대, 정치판의 사상 논쟁과 지역감정 등 이른바 색깔론 중심으로 엮였고, 제2부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멀지만 가깝게 착시하는 미국에 대한 애증의 단면을 날카롭게 보여준다. 제3부 '민권과 국권, 그리고 제주4·3'에서는 진실에 대한 추구와 치열했던 4·3의 여정을 다룬다.

이어 제4·5부에서는 지방화 시대의 빛과 그늘, 지방 자치에 대한 단상들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이 바로서야 천하가 편안하다'는 저자의 오랜 애정과 지방을 위하여 둔 관점이 돋보이는 글들로 채워졌다.

마지막 6부는 자연자원, 자연자본에 대한 고민의 일 단으로 현재 오름 등 난개발로 시달리는 제주 자연과 환경의 가치들을 생각하게 한다. 도화. 1만5000원.

오은지기자

잊혀가는 말과 풍경 찾아가는 여정

김도연의 '강원도 마음사전'

어느덧 중년이 된 작가가 어린 날을 돌아보며 새롭게 추억 여행을 시작한다. 책 '강원도 마음사전' (견는사람 펴냄)은 강원도 대관령에서 나고 자란 한 소설가가 점차 사라져가는 고향의 풍경과 말을 찾아가는 여정의 기록이다. 김도연 작가가 풀어내는 여러 편의 자연의 조각들은 독자에게 강원도 고유의 아름다움을, 투박한 정겨움을 선사한다.

나긋나긋하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저자는 크게 3부로 구성된 책에서 어릴 적 지냈던 대관령, 처음 유학을 갔던 춘천 등을 시작으로 속초와 강릉을 넘나들며 강원도 정서가 물씬 담긴 토속적인 단어들을 되살려

낸다. 제목에도 '강냉이밥' '갈풀' '달그장' '새빨' 같은 강원도 말부터 '강릉' '대굴령' '속초' 같은 특정한 지명이 달렸다.

그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배운 말들을 익히며 세상을 배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치는 찌지였고 입은 주뎀이었다. 구린내를 쿤내였고 공책은 책장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표준말을 배우는 우리들에게 서랍은 빼다지, 먼지는 문주, 흥내는 송내나 임내, 어린아이는 해다, 말벌은 바다리라고 가르쳐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회상한다.

"뻑뻑한 표준어의 숲에서 살



고 있지만 간혹 누군가 우연찮게 어린 시절의 말들을 불러오면 시간 이동을 한 것처럼 즐거워진다"는 작가. 출판사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던 작가의 유년을 따라가다 보면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세상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한다. 1만6000원. 오은지기자

"낮선 정보보안기술 쉽고 재미있게"

제주대 박남제·최은선 '...정보보안 인문학'

제주대학교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 최은선 연구원과 박남제 교수의 '제주 이야기로 만나는 정보보안 인문학' (제주대출판부)이 최근 출간됐다. '제주 문화로 만나는 미래기술 인문학'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도서로 독자로서 하여금 미래 핵심역량으로 대두되는 IT인문학 융복합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책은 이야기자간 삽화와 함께 신비하고 흥미로운 제주 신화, 문화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하고 미래 최신 정보보안기술의 핵심 원리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다. 단순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정보보안기술 포인트를 짚어줌으로써 인문학적 요소를 통해 IT 신기술과 서비스를 바라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놀이와 학습 자료를 풍성하게 제시해 교사나 학부모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은지기자

2억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2023년 황금연휴 전세기 떠나요! 마닐라닐라닐라

제주↔필리핀/마닐라 3박4일

관광올포함 **125만원** (미취학아동: 85만) | 골프올포함 **159만원** (54H/3조이상 단독) | 항공권 **69만원** (선착순 30명)

출국 22:30-01:00 | 귀국 17:00-21:30 **현지 추가비용 없음!!**

1차 (구정연휴) 01.22(일) ~ 01.25(수) | 4차 (6월연휴) 06.03(토) ~ 06.06(화)
 2차 (겨울방학) 02.24(금) ~ 02.27(월) | 5차 (추석연휴) 09.30(토) ~ 10.03(화)
 3차 (4월휴가) 04.06(목) ~ 04.09(일) | 6차 (크리스마스) 12.22(금) ~ 12.25(월)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포함사항: (공통)항공료, 5성급호텔, 차량료, 마사지(2회), 한국어가이드, 여행자보험, 가이드&기사팀 | ① 관광: 식사, 입장료 | ② 골프: 그린피(54H), 캐디피&카트피, 클럽식&석식
 불포함사항: 메니팁, 캐디팁(18홀/\$2) | *진세기의 경우 양국개(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기재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